

“전북 교구본사간 불교기구 구성하자”

전북 사부대중 10월 3일 100인 대중공사 개최

전북불교계의 사부대중이 10월 3일 '전북의 미래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를 고창 선운사에서 개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전북 사부대중 대중공사는 '전북지역 포교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돼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5개 모둠으로 나뉘어 진행된 개별토론에서는 전북지역 포교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포교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사찰들의 포교활동 사례도 제시됐다.

초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산촌 사찰의 경우 정기법회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전무한 실정인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진안 고림사의 경우 산골절의 특성상 사람이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마을별로 날짜를 정해 각 지역의 경로당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군포교의 경우 공통적으로 중년과 교구본사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군불자들의 경우 전역 후

어린이·군포교 등 문제점 제기

사찰운영 활성화 및 경영혁신 제시

교구별 군진흥회, 해외입양 등 논길

대불연이나 청년회 등 실행단체로 흡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각 교구별 군진흥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많은 사람들의 설득을 얻었다.

이밖에 포교를 위한 튼튼한 조직구성과 포교기금 마련,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포교프로그램 개발, 불교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 가족법회 활성화, 어린이 템플스테이 활용 등의 방안과 사찰 수익사업 진출, 소독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는 포교기금 마련 운동을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타 의견으로 해외 입양아를 절에서 입양하는 방안과 다문화 가족 흡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은 △사찰운영위 활성화 △선운사와 금산사 양 교구간 불교기구 구성 △포교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 △지역별, 계층별 포교, 문화포교 활성화 △조직포교 활성화 △사찰 재정 투명화와 경영혁신 방안 등에 대한 '사부대중 100인



전북불교계는 10월 3일 고창 선운사에서 100인대중공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불교계 포교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대중공사 부의안'을 제시했다.

한편, 대중공사 입재식은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렸다. 입재식에는 자성교과선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등 스님들과 불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입재식은 금산사 포교국장 지월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부안 성황사 주지 시건 스님의 '전라북도 지역별 불교현황보고'와 육군 35사단 호국충경사 김대성 법사의 '군 포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입재식에서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의 현재 모습은 1,700년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며 "하지만 그

동안 내실에 치중하다보니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의식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이어 "이제는 한국 불교도 세상을 바라보며 훨씬 대변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안락하고 행복하기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이 불교의 진면목"이라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지난번 대중공사에 이어 전북의 현실에 대해 대중스님들과 신도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며 "전북불교와 전북의 미래를 위한 꽃을 피우기 위해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꽃무릇 시화공모전 시상식

동백이 유명한 선운사 꽃무릇 시화전의 시상식이 10월 3일 선운사 극락교 앞 숲길에서 열렸다.

올해로 12번째 맞이한 선운사 꽃무릇 시화전은 300여 지역 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참여했다.

꽃무릇 시화공모전 대상은 이은(정음)씨의 '상사화'가 차지했으며 유인상, 최병철 씨 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신승호(고창북고)군이 고등부 금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을 비롯해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고창군의장 등 지역 기관장들과 고창문인협회, 고창문화원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우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꽃무릇은 동백과 함께 선운사의 대표적인 꽃으로



수많은 문인들을 통해 예술의 중심으로 승화되었다"며 "꽃 무릇 시화전이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꽃무릇 시화전 입상작들은 선운사경내와 생태탐방로 등지에 전시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문도의 날 법회

20대 회장단 이취임식 법회도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회장 만주)는 10월 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다목적홀 대강당에서 '제44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법회 및 제20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불교법왕 의문 대승정, 문도중앙회 이사장 겸 회장 만주스님, 문도중앙회 명예회장 용담스님, 대한불교 종단총연합회 총재 대원스님, 민족불교광덕종 종정 조연스님 등 문도중앙회 회원 500여명이 동참했다.

회장으로 취임한 만주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20대 회장직을 맡아 영광인 동시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일붕존자의 법맥을 이어받은 각 종단들이 서로 소통하



고 화합하여 하나된 단일 교단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불교법왕 대승정 의문스님은 법어를 통해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문형제들을 서로 보살피고 이해하며 문도회 발전을 우선시 해야 할 것"이라며 "회장단의 나아가는 방향에 적극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호남지역 최초 불교모금 '화제'

빛고을나눔나무 '2015불교모연아카데미' 개최

현대적 모금기법 보급 취지
11월 6일까지 총 6회 진행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만의 특화된 모금을 위한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호남지역 최초의 불교모금 강좌란 의미도 지닌다.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 상임이사 혜공)는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광주NGO센터 공동체홀에서 '2015불교모금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광주전남지역 사찰 스님과 불교관련 실무자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강좌는 5일 입재식과 첫 강의 '불교모금(모연)의 개념과 이해'를 시작으로, 10월 12일 '모금 계획의 수립'이 진행됐다. 이어 △10월 19일 '기부자(보시자)의 선정과 조사', △10월 26일 '제안 요청의 요령과 기술 및 제안서 작성법', △11월 2일 '후원개발 사례 발

표', △11월 9일 '후원개발 전문상담'이 진행된다.

입재식에서 이사 보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불교계 실무자를 위해 꼭 필요한 강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보다 현대화된 불교모금이 대중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불교계에서 최초로 선보인 이번 모연강좌는 사찰 및 불교단체 실무자와 체계적인 불사모연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불교활동가를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김재춘 가치문화경영연구소 소장은 "불교의 모연(모금)은 수행의 과정으로 보시자의 마음과 모금 기획자를 연결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시자의 마음속 고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빛고을나눔나무는 광주불교연합회 부설기관으로 광주전남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4년에 창립한 비영리단체이



빛고을나눔나무 모금 강연에 참석한 스님들이 밝게 웃고 있다.

다. 불교공동체의 중요한 한 축인 불교단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각 사찰에 불교단체 설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비영리 불교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불교의 다양한 영역들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에 진력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외국인 등 포교 취약계층과 해외구조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

등을 펼칠 예정이다. 빛고을나눔나무는 2014년, 2015년 2년에 걸쳐 부처님오신날 프로그램 공모행사를 통해 전체 4000여 만원을 불교계단체에 지원했으며, 네팔 지진피해 돕기 등을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진행에 2015년에 1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해외구조활동에 지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원사 '소년소녀 가장돕기' 산사음악회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화순 도원사(주지 진철)는 10월 3일 특별무대에서 '개원 11주년 기념 및 제6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서 진철 스님은 지역 내에서 힘든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15가구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행사는 원정스님(선각종 종회의장), 진철스님, 오찬열 신도회장, 최옥경 화순군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해 500여 신도들이 참여했다.

진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힘든 가정 생활에도 항상 밝게 생활하는 청소년 가장들에게 작은 희망과 선물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정스님도 격려사에서 "도원사가 지



역 주민들과 교류를 하며,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도량이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올해 개원 11주년을 맞이하는 도원사는 지난 2007년 창건한 후 매년 지역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연산대재를 봉행하고, 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승가회

이사장 성대 무공

회원 일동

■ 주소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길 신해사
■ 전화 : 055)855-1772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고문 자용. 범운
명예회장 벽담 학명
수석부회장 혜정. 혜진

사무총장 지담
총무부장 지련
재무부장 지선
기획실장 법정
대변인 진성
수석감사 덕성
감사 종산

자문위원 진우. 청암. 덕인
회장 광혜 무문
부회장 원행. 귀영

사회복지분과위원장 혜성
학술분과위원장 성담
포교분과위원장 보덕
연화(무료결혼)분과위원장 광덕
기획분과위원장 헤인
문화분과위원장 혜진
의례분과위원장 명원

사무총장 지담 010-2313-5671